

방글라데시의 봉제업: 희망으로의 험로(險路)*

한인수**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엄금화***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방글라데시 봉제업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의 연간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타즈린(Tazreen) 공장 화재나 라나 플라자(Rana Plaza)의 붕괴 등 일련의 참사로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 환경과 근로자의 고통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이 지닌 명암과 일련의 참사의 배경을 탐구하고자 했다. 우선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거시경제, 여성의 임파워먼트, 빈곤 감소 등에 대한 기여를 알아보았다. 또한, 현재 봉제업 근로자가 처한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을 여러 측면에서 자세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처한 이러한 현실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바닥으로의 경주 현상'인지 아니면 빈곤 탈출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희망을 향한 하나의 과정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초창기 기여자이며 이 분야의 가장 큰 투자자인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주제어 방글라데시, 봉제업, 의류산업, 바닥으로의 경주, 라나 플라자, 노동 권리

I. 서론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다카(Dhaka)¹ 근교에 있는 의류공장이 밀집된 라나 플라자(Rana Plaza)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1,135명의 근로자가 희생되고 2,500명이 부상하는 사상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이었다. 건물의 균열이 사전에 감지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아 희생을 키웠다.

* 이 논문은 2015 CNU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¹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Dhaka는 1982년까지는 Dacca로 표기되었다.

이 사건은 앞서 2012년에 110여 명의 사망을 낳은 타즈린(Tazreen) 공장 화재 사건에 이은 연이은 참사다. 봉제공장 근로자들이 처한 작업장의 안전 문제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장주의 부도덕한 경영이 새삼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이 공장에서 아웃소싱을 해오던 구미의 다국적 의류업체들의 책임 문제도 부각되었으며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따라서 참사 이후 구미의 바이어들에게도 방글라데시 공장주와 함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었다.

참사 이후 학계 일부에서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²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글로벌 의류 생산과 소비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됨과 동시에, 이러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불행이 글로벌 시대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나 근로 조건의 저하 등을 유발하는 소위 ‘바다으로의 경주’의 한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방글라데시 봉제업 근로자가 겪는 불행의 근원을 글로벌 경제의 보다 큰 틀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봉제업 또는 그 근로자의 불행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1978년 한국의 (주)대우와 이루어진 합작투자가 방글라데시 봉제업 발전의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계약에 따라 우리 기업에서 훈련된 기술자들이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개척자들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150여 개에 이르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방글라데시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의류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13억 달러 중 한국이 3억3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한다(Bangladesh Bank, 2013). 또한, 중국, 베트남을 대체할 의류 생산기지로 이 나라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발생한 일련의 참사들을 강건너 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²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해 제품을 유통하는 의류를 가리킨다.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빠른 유통,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 사업이다. 음식으로 치면 패스트푸드에 해당하는데, 의류에서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 동시에 이 산업이 방글라데시 경제에 미친 효과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바닥으로의 경주’의 한 징후인지 또는 희망으로 가는 과정의 진통인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끝으로는 방글라데시의 참가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덧붙인다.

II.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발전 과정

다음은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

방글라데시에서 봉제업(garment industry)이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봉제업의 전 단계인 섬유산업의 뿌리는 매우 깊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섬유산업에는 목화나 양털과 같은 천연섬유나 인공섬유에서 실을 생산하는 방적, 실을 짜서 천을 만드는 직포, 천에 물을 들이는 나염 등 범위가 넓다. 그중에서 실이나 포를 이용해 옷을 만드는 작업이 봉제(縫製)다. 이 봉제는 대부분 기성복(RMG: ready-made garments) 형태로 이루어진다.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벵골(Bengal) 지역은 과거 인도 대륙 중에 선진 지역이었다. 면섬유산업은 인도가 발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다카모슬린을 생산하는 벵골 지역은 면섬유산업의 대표적인 생산지였다(村山眞弓·山形史編, 2013).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절 면제품 경쟁국이었던 영국의 정책에 의해 면제품 장인들의 활동이 억제되고 영국의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면제품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전통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동벵골 지역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황마를 필두로 하는 농산물의 공급지 역할에 머물렀다. 영국 지배가 끝나고 1947년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섬유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했다. 공업화는 주로 서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파

키스탄의 대다수 산업 역시 서파키스탄 자본가들에 의해 소유되었기 때문이다 (Islam et al., 2013).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후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신생 방글라데시의 정권들이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기 때문이다. 국유화된 섬유공장은 방글라데시 섬유제조업공사(BTMC: Bangladesh Textile Mills Cooperation)라는 국영기업의 일부가 되었다.

섬유산업의 민간 기업들은 1975년 지아우르 라만(Ziaur Rahman)이 정권을 담당하면서부터 활력을 갖기 시작했다. 지아우르 정권에서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으로 민간투자의 제한완화가 시행되었다. 1977년에는 섬유성(Ministry of Textiles and Jute)이 창설되고 여기서 BTMC를 감독한다. 1982년 무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에르자드(Hussain Muhammed Ershard)는 민영화를 더욱 추진한다. 그는 그 해에 국유화된 섬유공장 일부를 벵골인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조업을 개시해 1983년에는 이들 기업의 업계 단체인 방글라데시 섬유제조업협회(BTMA: Bangladesh Textile Mills Association)를 설립한다. 이후 공기업인 BTMC와 BTMA 산하의 민간 기업이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을 담당하게 된다.

2. 봉제업의 형성과 발전(1970~1985년)

앞서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역사가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했지만, 실이나 천으로 옷을 만드는 봉제업이나 의류산업(apparel industry)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전통의상이 옷이라기보다는 천을 두르는 형태였음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수출용 봉제업이 일어나 방글라데시 제조업과 수출 품목 가운데 지배적인 위치를 얻게 된다. 그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즈음 전통적인 의류 수출 강국인 한국과 홍콩의 기업들은 선진국에서 수출 물량의 제한을 받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생산기지를 찾고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좋은 대안이었다. 이들 기업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 방글라데시의 싼 노동력이 큰 유인으로 작용했다.

1978년 당시 한국의 대우가 방글라데시의 ‘데시 가먼트즈(Desh Garments)’사와

기술협력·마케팅 협정을 맺었다(Yunus and Yamagata, 2012). 협정 내용은 데시 가먼츠 사원의 연수를 대우가 행하는 대가로 이 회사는 대우에 매출의 8%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정에 따라 데시 가먼츠 사 직원 약 130명이 대우의 부산 공장에 파견되어 6개월의 연수를 받았다. 이 130명이 회사에 돌아와 조업을 개시해 수출을 했다. 또한, 대우에 파견된 130명 중 다수가 퇴직 후 새로운 봉제공장을 설립해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기초를 삼았다. 이 시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영원무역은 1980년에 합자기업으로서 방글라데시의 항만도시인 치타공(Chittagong)에서 수출용 생산을 시작해 현재에도 다카와 치타공에서 대규모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데시 가먼츠 사의 창설자인 누를 까들(Noorul Quader)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산업정책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Quddus and Rashid, 2000). 그는 관료 출신의 기업가로 자사의 생산 수출을 위해 예우조치로서 동시개설신용장(back-to back letter of credit)이나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제도의 창설을 정부에 요구해 1980년 이들 예우를 얻었다. 그 후 수출용 의류 생산 기업 전체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효시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 기업이 방글라데시 기업에 의류의 위탁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방글라데시 봉제 업계에서는 특히 획기적인 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까지 방글라데시의 봉제 수출은 붐을 이루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출 봉제기업의 성장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전략산업으로 육성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Quddus and Rashid, 2000). 1982년에는 방글라데시 모든 종류의 의류 생산자, 수출자의 조합인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업자·수출업자조합(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업계 단체로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력하여 봉제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3. 방글라데시의 수입할당(쿼터) 설정(1985~1990년)

성장을 거듭하던 방글라데시의 봉제 수출 기업이 1985년에는 하나의 장애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의한 수입할당(쿼터) 설정이다.

1974년 만들어진 다자간섬유협정(MFA: Multi-Fibre Arrangement)은 1985년까지 세계적으로 섬유외류 무역을 지배해온 체제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아시아의 섬유외류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련의 자발적인 수출 제한이다(Joarder et al., 2010). 섬유외류의 주요 수출국에서 구미제국으로 수출할 때는 수입국이 수출품 목별, 수출국별로 자세하게 수입할당을 정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할당을 초과한 수출을 하면 다음 연도의 당해 품목의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족률을 가능한 한 100%에 가깝게 하면서도 이를 초과하지 않게끔 수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할당은 외류 수출량이 큰 나라에만 적용되고 방글라데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의 섬유외류 수출은 세계 기준에서 볼 때 그리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국 기업을 필두로 하는 외자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생산을 위탁하는 큰 이유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외류 수출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1985년에는 구미의 여러 나라가 방글라데시에도 쿼터 적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입할당의 움직임은 방글라데시에 위협으로 작용했다. 이제까지의 경쟁우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 간 교섭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의 규제는 벗어났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할당은 200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입할당이 방글라데시의 외류 수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봉제의류 수출은 계속되었다. 1985~1986년의 수출액은 9,800백만 달러가 되어 전년도의 7,5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1986~1987년에는 2억 2,5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그 후에도 매년 평균 24%라는 고성장을 계속했다(Joarder et al., 2010).

4. 니트 외류의 성장과 WTO의 설립(1990년대)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은 원래 직물(woven wear)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후발 분야인 니트 외류(편물, knitwear) 분야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 방글라데시에서 니트 천이나 니트 외류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되게 된 배경에는 1995

년부터 EU의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조건으로 원산지규칙(RoO: rules of origin)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니트 천도 방글라데시 국내 생산을 의무로 하는 내용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山形辰史, 2013). 니트 의류 업체들은 주로 치타공, 가지푸르(Gazipur), 나라양간지(Narayanganji) 등을 중심으로 소재했고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1996년에 니트 제품의 산지인 나라양간지에 입지한 공장을 중심으로 니트 제품만을 취급하는 ‘방글라데시 니트웨어 제조업자·수출업자 조합(BKMEA: Bangladesh Knitwear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을 설립하기도 했다.

1995년 방글라데시의 봉제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 해에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구의 설립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지금까지 섬유·의류산업에 적용되었던 MFA는 자유무역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철폐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실제로 WTO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의류 수입 할당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방글라데시는 우려와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 이유는 의류 수출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때문이었다. 수입 할당을 철폐하면 중국의 의류 수출이 급신장해 인도 이외의 저소득국 의류 수출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Norda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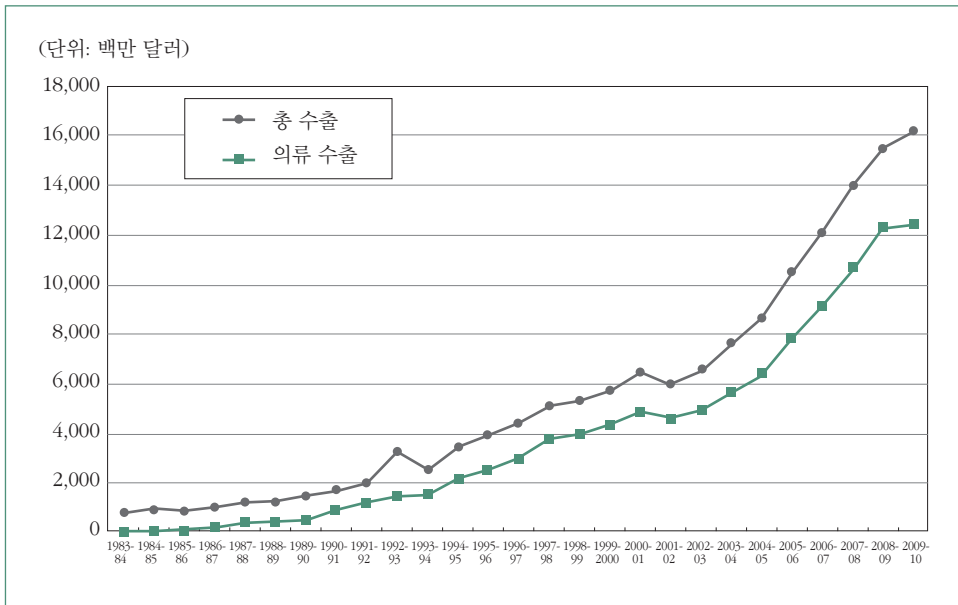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이 신장하고 고용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측면에서 관심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근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많은 선진 의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에 투자하거나 위탁생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시민단체나 미국의 노동조합이 방글라데시 봉제공장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감시도 더불어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학령기에 있는 아동의 고용이 문제되어 1995년에는 BGMEA와 국제노동기구(ILO) 간에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각서가 교환되었다.

5. 포스트 MFA와 지속 성장

폐지를 반대하는 여러 나라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을 기해 MFA는 WTO 가맹국 간에는 철폐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의류 수출은 급

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역풍을 불러왔다. 중국의 의류 수출 급증을 보고 미국은 같은 해 5월에 셰이프 가드를 발동했고 EU는 이의 발동을 암시하면서 중국에 수출 자율규제를 압박했다. 그 결과 6월에 중국과 EU 간에 2008년까지 중요 품목의 대 EU 수출을 매년 전년대비 약 10% 증가로 억제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 중국과 미국 간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주요 품목의 대미수출을 10~17%로 억제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어 중국제 의류의 극적인 증가는 저지되었다.

따라서 MFA 철폐 후에도 방글라데시의 봉제 수출은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증가세를 유지했다. 실증적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봉제 수출은 평균 연간 19%를 기록해 왔다. 쿼터가 없어진 첫해 6개월 동안 수출은 19%를 기록했고 2005~2006년 회계연도의 봉제 수출은 평균보다 높은 23.5%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의류 수출은 4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2003~2004년 회계연도보다 75%나 높은 수치



출처: 村山真弓·山形辰史(2013).

그림 1 방글라데시 봉제 수출의 추이

표 1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발전

연도	제조업체 수 (개)	고용 (백만 명)	수출액 (백억 달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7~2008	4,743	2.8	10.7	75.8
2008~2009	4,925	3.5	12.4	79.3
2009~2010	5,063	3.6	12.5	77.1
2010~2011	5,150	3.6	17.9	78.2
2011~2012	5,700	4.0	19.1	78.6

자료: Islam et al.(2013).

다(Yunus and Yamagata, 2012). 포스트(post) MFA 시대에도 방글라데시는 이 분야의 승자였음이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방글라데시의 봉제 수출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2002년과 리만 브라더스 쇼크가 있었던 2009~2010년에 다소 정체를 보였을 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村山真弓·山形辰史, 2013).

6.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현황

1970년대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은 이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봉제 수출액은 2012년에 190억 달러로 이는 방글라데시의 연간 전체 수출액 240억 달러의 80%에 해당한다(Islam et al., 2013). 그리고 GDP의 15%에 해당한다. 고용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의류산업의 고용은 전체 산업 고용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맥킨지(McKinsey) 사는 향후 10년 이내에 방글라데시의 봉제 수출이 배가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McKinsey & Company, 2012).

III. 봉제업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작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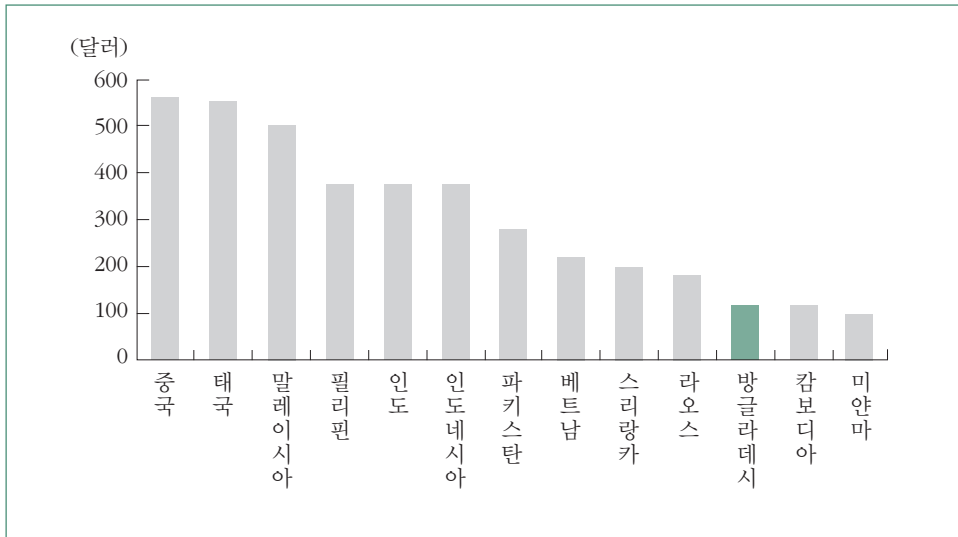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근로자들의 고통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하고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아동노동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1.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방글라데시에서 봉제업이 발달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인구에서 나오는 풍부한 노동력에다 그들의 임금이 싸다는 데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3,000타카(약 39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섬유 수출 경쟁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글라데시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중국의 5분의 1, 인도의 3분의 1에 불과해 캄보디아나 미얀마와 더불어 그림 2에서 보듯이 아시아 최저 수준이다(小林公司, 2013; JETRO, 2013). 월 평균 급여 54달러인 미얀마 근로자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임금이 낮다.

라나 플라자 참사 이후 방글라데시 제조업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국제 문제화되고 임금 인상의 압력이 강화되어 2013년 12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출처: 小林公司(2013).

그림 2 방글라데시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 비용(월액, 2012년)

5,300타카(68달러)로 인상되었다. 이는 이전의 최저임금에서 77%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큰 폭의 인상이 근로자의 삶을 크게 개선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9월 방글라데시의 씽크 탱크인 다카 경제연구소 CPD(Centre for Policy Dialogue)가 도시에서 기초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6,500타카로 산정하여 발표한바 있다(Centre for Policy Dialogue·Berenshot, 2013). 따라서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생활에도 부족하다는 근로자들의 절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 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임금 현황은 의류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등 잦은 노동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지나친 장시간 근로였다. 대부분 의류공장에는 표준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Ahamed, 2012). 또한 강제 노동이 일반적이다. 근로자들에게는 채워야 할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근무시간 중에 이를 못 채우면 뒤에 남아 초과임금도 없이 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시간의 초과근무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하기를 거부하면 급료가 줄어들거나 욕을 먹는다. 심지어 체벌까지 당한다. 더구나 공장 경영주는 작업자에게 초과근무가 있는지를 퇴근 전에 알려주지도 않는다. 대개는 일과 종료 바로 전에 고지된다. 어떤 공장에서는 야간근무를 밤 12시나 새벽 3시까지 연장하기도 하는데, 바로 아침 7시에 새로운 근무가 시작된다. 많은 공장에서 초과근무를 강제하기 위해 공장 문을 잠그는 것이 관행이다.

2.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보다도 근로자에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열악하고 안전하지 못한 근무 환경이다. 우선 비좁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작업한다. 그 결과 행동이 부자유해 근골격계 장애나 전염병 등으로 직업상 피해를 받는다. 장시간 근로와 환기시설의 미비로 근로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점심을 위한 공간도 없고 깨끗한 식수를 얻기도 힘들다(Paul-Majumder and Anwara, 2000).

계다가 건물의 안전기준이 취약해 화재나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근로

표 2 의류공장의 화재사고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

연도	사망자 수	공장	연도	사망자 수	공장
1990	32	사라카 가먼즈, 다카	2004	23	초두리 니트웨어, 나르상디
1996	22	루사크 가먼즈, 다카	2005	23	산니팅, 나라양간지
1997	24	상하이 어패럴즈, 다카	2006	62	KTS 가먼즈, 치타공
1997	20	자하나라패션, 나라양간지	2010	29	하밋그룹 스포츠웨어공장, 치타공
2000	12	글로버니팅, 다카	2012	112	타즈린패션, 다카 아술리아
2000	23	마크로스웨터, 다카			

자료: Pratap(2011).

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2012년 타즈린 화재나 2013년 라나 플라자의 붕괴에서 보듯이 이는 대량참사로 연결된다.

의류공장의 화재사고에서 발생한 사망 건수를 나타낸 표 2에서 보듯이 많은 의류공장이 화재에 취약하다(Pratap, 2011). 타즈린 공장의 화재 때는 근로자들이 외출하지 못하도록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도 원단 등 작업물들로 막혀 있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탈출하기에 계단은 너무 비좁았다(Jason and Saad, 2012). 라나 플라자 참사 때는 건물의 붕괴 조짐이 있어 조업 중지가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주의 강요에 의해 조업이 계속되다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라나 플라자는 8층 건물임에도 철근이 별로 사용되지 않은 부실건물이었다(배윤정, 2013). 방글라데시에서 봉제업 근로자는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다.

3. 노동 관련 법적 기준의 미준수와 인권유린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노동기준은 ILO의 기준이나 국제 규약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과 관련된 법적 기준(social compliance)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는 표현은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의 위반은 근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연결된다. 봉제업의 80%를 차지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늦게까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이 없고, 숙소가 없으며 교통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의류 노동자들이 강간이나 학대를 받고 있다. 라니 패션 사(Lani Fasion Limited)

에서 발견되는 성희롱이나 경영층에 의한 살인이 그런 폭력의 대표적 사례다 (Ahamed, 2012).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에서는 아동노동도 문제다(Ahamed, 2012). I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최소 노동 연령은 14살이지만, 14살 미만 어린 노동자의 93%가 가내공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 아동의 숫자가 한때는 1,500만 명에 이른 적이 있다. 1993년에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에서 5만 명의 아동을 해고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동노동금지법(Child Labor Deterrence Act)³의 통과에 따른 경제 제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5살에서 17살까지의 아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적어도 74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130만 명 정도는 주당 43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이들은 위대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한다.

4. 노동권의 부재와 법 집행의 결여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근로자들은 공장 수준에서 단체교섭권이 없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실질적인 권리도 없다. 1986년 제정된 BEPZA 법(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ct)에 방글라데시 노동법이 수출가공지역(EPZ)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의류산업이 EPZ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류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였다. 이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근로자의 투쟁에 의해 2004년에 EPZ 노동자 결사 및 노사관계법(EPZ Workers Association and Industrial Relations Act)이 제정되어 노

³ 이 법을 발의한 미 상원의원 톰 하킨(Tom Harkin)의 이름을 따 하킨 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에서는 일부라도 아동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⁴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공단은 1980년 제정된 ‘방글라데시 EPZ 법(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ct)’에 따라 1983년 최초로 항구도시인 치타공에 설치되었다. 그 이후 1993년에는 다카, 1997년에는 몽글라(Mongla), 2000년에는 코밀라(Comilla), 2001년에는 이쇼르디(Ishwardi)와 우타라(Uttara)에 각각 설치되었다.

수출가공공단 입주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 및 차입 자본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쌍무협정에 따른 이중과세를 면제하고, 기계류·장비·원자재·차량·공장건물 건설용 원자재 면세 수입, 생산제품의 면세 수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법으로 보장되고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이윤과 투자 원금의 철수가 가능하다(외교부, 2010).

조 결성의 길은 열리게 되었지만 라나 플라자 참사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유예 조치로 인해 실효성이 없었다(Pratap, 2011).

노동과 관련된 각종 규약과 법규가 지켜지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근로자 자신이 권리와 보호법규에 대한 의식이 없다. 방글라데시 봉제업 노동자의 80% 이상은 농촌에서 이주한 여성이고 그들의 문맹률이 매우 높다(Ahamed, 2012).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무지하다. 근로자 자신도 단결이나 단체협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대변할 노조를 갖지 못했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하려면 고용주(공장주)의 허가가 필요했다. 고용주들은 노조가 존재하면 방글라데시 봉제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해서 노조의 존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봉제업 공장주나 그들의 협회인 BGMEA 관리들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United States Senate, 2013). 그들은 1970년대에 방글라데시 경제의 주요 축이었던 황마산업의 쇠퇴가 노조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다. 당시 노조는 정치적이고 정치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력을 받고 있어 근로 조건이나 노동권과 관계없는 이슈로 파업이 잦았기 때문이다. 많은 공장주는 과거의 이러한 사례가 봉제업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셋째,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에서 사용자 단체의 입김이 너무 세고 정부는 미온적인 법 집행을 시행해 왔다는 주장이 있다(United States Senate, 2013). BGMEA는 봉제업 사용자협회로 국내 쿼터를 조정하면서 강력한 단체로 영향력을 발휘해 오고 있다. 그들은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규제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근로자들의 편은 아니었다. 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봉제업 공장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집행할 능력도 의사도 별로 없었다.

5. 노동소요의 증대

열악한 근로 조건과 생활 조건에서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인 노조의 결여는 돌발적인 노동소요의 형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억눌려 있던 불만은 물가 인상이나 임금 삭감, 안전사고 등의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노사분규는 분노의 감정이 실린 과격하고 격렬한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근로자의 최초 대규모 시위는 2005~2006년에 일어났다. 근로자들의 요구는 체불임금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고용주 횡포 중단 등이었다. 정부 측의 과잉 진압에 의해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했고 몇몇 근로자의 희생 뒤에 사회불안을 걱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8년의 파업은 치솟는 식품 가격에 항의하며 실질임금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2008~200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의류 가격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근로자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함으로써 노동소요가 발생했다. 임금 삭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하자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과격함 시위가 전개되었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고 6월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시위 도중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0년 7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3,000타카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장주들이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다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다카 근처의 하밍그룹 스포츠웨어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3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었다. 그러자 더 큰 노동 불안을 걱정한 고용주들이 개정된 임금안을 지킬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

6. 참사 이후의 개선 조치

열악했던 근로자의 노동 환경에 개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

컬하게도 연이은 참사에 따른 근로자 자신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타르린 화재와 라나 플라자 참사는 방글라데시 봉제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납품을 받는 선진 의류 업체들에 대한 자국 내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평판 하락을 우려한 의류 업체들은 개선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다시 봉제업 공장주들에게 작용하여 근로 조건 개선과 공장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일부 선진국의 의류 업체들은 방글라데시 공장과의 거래를 단절하기도 했다.

라나 플라자 참사 뒤 국제적 압박의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법의 개정

우선 오랫동안 유지되던 3,000타카의 최저임금이 2013년 12월부터 5,300타카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숙원이었던 노동법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개정된 노동법은 고용주(공장주) 허가 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개정 노동법은 5,000명 이상 공장에 진로소를 만들게 하고, 노동자가 숨질 경우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만큼 고용주가 유족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고용 후 12년 안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1년치 연봉을 주고, 근무 12년마다 한 달 반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봉급은 은행계좌로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2)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협약과 동맹

문제가 되었던 근로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에 의해 두 가지 이니셔티브가 취해졌다. 하나는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미국 기업들이 <화재·건축안전기준에 대한서의 협정(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5. 15)에 서명한 것이다.⁵ 현재 15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협약에

⁵ 유럽 기업으로는 H&M, Zara, 미국 기업으로는 PVH(Calvin Klein, Tommy Hilfiger, Izod의 모기업), American Eagle, Abercrombie & Fitc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했다. 이를 통해 유럽 기업들은 공동기금을 마련해 사고 피해복구를 도왔다. 또한, 자체 안전감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공장을 폐쇄했다. 8개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그 수가 적고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보다는 개선에 적극적이다.

반면에 미국 소매업자들은 소송에 의한 분쟁 처리에 불안을 느끼고 이 협정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별도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을 결성해서 안전관리, 지원자금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서명한 미국 기업은 26곳에 불과하다. 월마트(Wal-Mart), 갭(GAP), 메이시스(Macy's) 등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서명한 기업들도 공동기금이나 법적 구속 절차 마련을 완강히 거부한다. 또한, 협의 주체에 방글라데시 노조를 포함시키는 데에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조목인, 2014).

‘협정’과 ‘동맹’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약 절반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데 협정에 속한 공장이 약 1,500개, 동맹에 속한 기업이 700개, 양쪽에 속한 기업이 350개 정도에 이른다.

‘협정’과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의사결정 권한과 관련된 것이다(United States Senate, 2013). 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맹’에서는 개별 회원들에게 맡기고 있다. 예컨대 ‘협정’에서는 이사회가 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장에서 계속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반면에 ‘동맹’에서는 개별 기업이 동맹에서 승인한 조사관을 고용할 책임이 있다. 한 공장에서 계속 조달 여부는 회원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고 한 회원에 대한 제재는 다른 기업들만이 주도할 수 있다. 그것도 최악의 경우에 동맹에서 탈퇴시키는 것일 뿐이다.

연이은 참사 이후에 방글라데시 봉제업 근로 환경에 대한 기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들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매일 10~12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하청을 줘서 생산하는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자라(Zara)와 H&M, 갭, 월마트,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 등은 사고로 인한 자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공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초보적

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하청 업체와 가연성 물질을 비상구에 놓지 않는 등의 내용에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장 내부의 스프링클러 설치, 공장 이전 등에서는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4,000개에 달하는 공장 가운데 4분의 3은 아직도 노동 조건 관련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Ruth, 2014). 라나 참사 이후 노조 설립이 인정되어 노조가 237개로 두 배 증가했지만 이는 전체 공장 5,000개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Butler, 2014). 무엇보다도 참사 이후에 다국적 의류 소매업자들이 약속했던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도 아직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방글라데시 의류 근로자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가혹한 현실이다(Ross, 2014).

IV. 바닥으로의 경주인가? 희망으로의 험로인가?

타지른 패션과 라나 플라자 참사 이후 방글라데시 봉제 근로자가 겪는 고통과 불행은 목도하면서 학계나 실무계의 일부에서는 이를 글로벌 시대의 문제점인 바닥으로의 경주 현상의 징후로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현상이 바닥으로의 경주인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빈곤의 탈출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진통 과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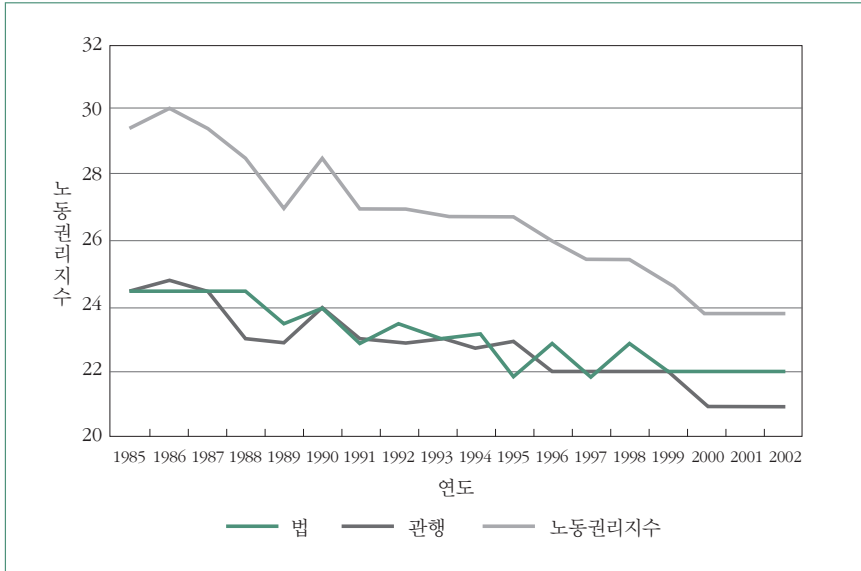
글로벌화의 회의론자들 중에는 자본과 노동의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세계인의 부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노동 조건의 악화,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이 싫어하는 정책을 정부가 없애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 환경규제, 근로 조건 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Davies and Vaclamannati, 2013).

이러한 현상이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든 그 과정은 유사하다. 노조 결성이나 단체교섭권 같은 엄격한 노동 기준들은 높은 인건비를 낳는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외국인의 투자는 약한 근로 기준과 싼 노무비를 찾아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쟁하는 나라들 간에는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문턱을 낮추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바닥으로의 경주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진전과 그에 따른 국제조세나 환경규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비해 근로 조건에서의 바닥으로의 경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Davies and Vadlamannati, 2013). 이 연구에서는 18년간 135개국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거나, 모든 형태의 강요된 노동을 제거하거나 항의할 권리 여부와 같은 노동권리의 척도들을 조사하고 있다. 전체 37개의 지표로 국가별 노동권리를 지수화했다.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최저임금이나 실업수당 등은 빠져 있다. 한 국가의 최고점은 56점인데 135개국 샘플의 평균은 26.6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예상대로 시민권리가 높은 나라가 노동 기준이 높았고, 부자 나라들인 OECD 회원국이 비회원국보다 기준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림 3에서 보듯이 1980~1990년대 기간 노동 권리 지표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경쟁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기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간 경쟁의 증거가 발견되는데 여러 나라의 노동 기준이 하락하면 기타 나라들의 그것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 WTO 회원국이 되면 노동권리지수가 낮아지는 것도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바닥으로의 경주는 좀 더 미묘한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듯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을 제정하는데 서로 경쟁하지만 그런 경쟁은 크게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법을 위반하기보다는 노동법을 강제하는 강도나 관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노동의 관행이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출처: Davies and Vadlamannati(2013).

그림 3 근로 기준에서 바닥으로의 경주

연구는 근로 기준에서 바닥으로의 경주 상황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경제사회적 기여

방글라데시에서 봉제업은 근로자들에게 화재와 붕괴 등 재앙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글라데시가 겪어온 오랜 동안의 빈곤과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었다. 봉제업은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거시경제를 발전시켰고 여성에게 지위 향상의 기회를 주었으며 오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했다.

1)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출

총액에서 의류 수출은 2009~2010년 77%에 달하고, 1997~1998년 이래 수출의 약 4분의 3을 의류가 점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연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봉제 수출이 방글라데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2001~2002년에 실시된 제조업 센서스에 의하면 제조업이 낳은 총 부가가치에서 의류 산업은 22%로 최대를 차지한다(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7). 다음이 섬유산업(신발 가족제품 포함)으로 20%를 차지한다. 양 산업에서 제조업의 4할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고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의류산업은 단독으로 전 제조업에서 48.8%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섬유산업의 24.8%를 첨가하면 양 산업에서 제조업 전체 고용의 3분의 2 이상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Shoncoy and Tsubota, 2013).

2) 여성의 지위 향상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은 여성들에게 행복과 고통 양자를 선사해주었다. 타즈린 공장의 화재나 라나 플라자 참사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성 근로자여서 봉제업은 불행의 근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을 신분적으로 가정에서 해방시켜 주고 소득을 통해 지위 향상을 이뤄준 것도 이 산업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의류산업은 어느 나라나 여성 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참을성이 있고 민첩하며, 둘째, 남성보다 통제하기도 쉽다. 셋째, 이동성이 적으며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다. 넷째, 가정에서 늘 하는 일이라 재봉일을 잘한다는 등의 이유다(Paul-Majumder and Anwara, 2000). 그러나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금하는 푸르다(purdah)⁶라고 하는 사회규범이 있기 때문에 봉제공장에서 여성이 일하는 데 처

⁶ 푸르다(Purdah or pardah)는 페르시아 말로 커튼이라는 뜻으로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을 격리하는 종교적·사회적 관습이다. 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 만연한다. 쉽게 말해 남성이 여성을 못 보게 하는 관습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행태가 있는데 하나는 남성과 여성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신체나 피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음에는 저항이 있었다.

봉제업에서 여성근로자는 1979~1980, 1980~1981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 이하였다. 그 이후 서서히 상승해 1989~1990년에는 60%까지 도달한 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80~90%를 유지하고 있다(The World Bank·IFC, 2011).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증가가 그들의 지위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 측면은 봉제업 취업을 통해 가정의 질곡에서 해방되고 가정 내 경제적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남성에게 의존하고 외출도 쉽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행동의 자유가 작았던 여성들이 노동을 위해 외출하고 가족을 위한 수입원이 되면서 가정 내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방글라데시 경제의 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기회는 거의 없었다. 봉제업은 여성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에 속한다.

한편, 이슬람의 전통적 사회규범의 위반과 유해한 노동 환경에 따른 위협의 증가는 부정적 측면이다. 견고한 사회규범으로 성립해온 푸르다를 파괴했다고 보아 친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반발을 불러올 위협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출 의류산업이 성장해서 30년이 경과한 지금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서서히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하는 공장에서도 기온, 한기, 분진 등의 위생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폭력, 성적 희롱 등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3) 빈곤 감소에 기여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임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봉제산업의 근로자들이 고생만 했지 자신이나 그 가족의 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업은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사람이 절대빈곤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한다(Fukunishi et al., 2006).

첫째, 의류산업에서 얻는 고용기회는 농촌보다 임금이 높다.

표 3 방글라데시 니트 의류 생산 기업의 평균 임금(2001년, 타카)

직종	경험 연수	1년		1~5년		6~9년		10년 이상		평 균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합
사무 부문	경영자 관리직	4,000	15,000	9,661	7,500	11,549	8,333	15,228	14,000	12,415	9,210	12,293
	기타 사무직	3,688	-	5,139	5,673	7,661	15,000	11,269	-	7,131	8,005	7,142
스웨터/ 양말의 편직	기술자	4,000	-	-	-	8,889	-	10,000	-	8,625	-	8,625
	작업 감독자	4,500	-	4,914	4,000	5,191	4,941	9,000	-	5,151	4,800	5,085
	공원	2,500	2,500	4,515	3,271	7,052	3,614	8,000	3,000	5,269	3,454	4,979
	보조 공원	1,026	1,015	1,386	1,166	-	-	-	-	1,311	1,110	1,213
봉제	기술자	4,875	-	4,789	5,000	5,862	-	9,161	-	7,203	5,000	7,190
	작업 감독자	-	2,000	3,405	4,684	4,116	4,968	5,179	3,000	3,974	4,738	4,015
	공원	1,686	1,600	3,008	3,053	3,343	2,993	4,484	5,500	3,218	3,015	3,153
	보조 공원	1,051	1,160	1,122	1,178	1,277	1,256	1,583	-	1,136	1,183	1,158

주: 1타카(BDT)는 약 14원.

출처: 日本國際協力銀行 開發金融研究所(2005).

둘째, 의류산업의 임금은 방글라데시 각 지역별로 산출된 빈곤선을 상회한다. 셋째,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의 고용기회가 봉제업이나 의류산업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보수나 노동 조건이 열악한 하녀나 건설업 등에만 취업의 기회가 한정될 뿐이다.

넷째, 의류산업의 고용에는 그리 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농촌에서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봉제업이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제업이 성장 과정에서 빈곤층에 고용기회를 준 것이 표 3에 나타나 있다(日本國際協力銀行, 2005). 이는 2001년에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근교의 니트 의류 생산 기업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봉제업의 주요 부문인 직물이나 편물에 있어서 가장 저임금

의 직종인 보조공원(helper)의 기업 평균임금은 2001년에 약 1,000타카였다. 이 수준은 다카에서 계측된 빈곤 계층과 국제 빈곤 계층(1일 1달러)의 사이에 위치한다.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공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빈곤 계층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보조공원을 계속하는 한 그 임금은 경력 연수가 올라가도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1999~2000년 가계조사에 따르면 농촌 빈곤층은 농업에서 자영의 경우 월 569타카, 농업노동자는 833타카를 벌 수 있었다(Osmani et al., 2003). 비빈곤층을 포함한 평균으로도 자영, 농업노동자의 경우에 각각 829, 846타카였기 때문에 농촌의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공원의 임금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보조공원이 공원(operator)으로 승진한다면 임금은 봉제 부문의 경우 1.5~3배가 된다. 2003년에 편물(니트)과 직물 의류 생산 기업 전체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보조공원에서 공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평균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조공원과 공원 간의 평균 학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승진하는 데 큰 장벽이 없음을 알 수 있다(Fukunishi et al., 2006). 이처럼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고용기회를 얻은 빈곤층 사람들은 우선은 보조공원으로서 빈곤선 수준의 소득을 얻지만 그 후 승진으로 임금이 늘고 그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가졌다.

3.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의 타당성 논쟁

이러한 자료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이 2000년대 이 나라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앞서 논문에서 설정했던 명제인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에 대한 충분한 결론이 되지는 못한다. 그 이후 발생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강화와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류산업에서는 MFA 철폐 후에 세계적인 경쟁 격화와 뒤이은 글로벌 경제위기,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의류 가격이 세계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격 저하가 근로자 노동 조건의 악화와 연결된다는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이 타당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연

구 결과가 있다(明日山陽子 외, 2011). 봉제공장의 근로자(특히 보조나 봉제공이라는 주요 직종)의 임금은 명목, 실질 공히 향상되고 있으며, 생산 비용 전체에서 점하는 임금의 비율도 2002~2009년 사이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어도 최저임금이 2000년 3,000타카, 2013년 5,300타카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봉제업 근로자들에게 있어 바닥으로의 경주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던 실질적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2009년 실질적인 의류 가격 전쟁이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 주요 의류 수출 국가들 간에 발생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투자자나 방글라데시의 공장주들은 이러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자 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이 업계 내에 만연했다. 일부 공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2008~2009년 이후 근로자의 임금은 거의 30% 삭감되었다. 2009년 정부의 공장감사부(Factory Inspection Department)가 조사한 바로는 조사 대상 825개 업체 중 122개 업체(14.7%)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공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압박이 건강문제를 악화시켰다(AFP South Asian Edition, 2009; Pratap, 2011).

이러한 사태는 근로자들의 과격한 파업이나 시위와 연결되었고 정부의 과민 대응에 따라 시위 도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따라서 명목상의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의 상승은 근로자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근로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면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바닥으로의 경주’는 그대로 현실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명목상의 임금이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 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노동소요는 많은 원인이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 상승 요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의 상승로이면서 동시에 바닥으로의 경주인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당성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1970년대 한국 봉제업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

타즈린 공장 화재와 라나 플라자 참사를 통해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드러난 근로 환경의 민낯은 참담하고 또 개탄할 만하다. 참사를 통해 살아난 부상자들이나 생존자들이 농촌에서 이주하면서 가졌던 꿈은 무참히 깨졌고 오히려 농촌에서의 더 가난했던 삶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회의마저 들게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이 근로자들에게 절망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여성 근로자가 가정의 질곡에서 해방되었고 적으나마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을 주었다. 봉제업은 절대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희망의 통로였다. 그 희망의 통로가 순탄하지 않고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지만, 방글라데시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착취(sweatshop)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주장(Meyerson, 1997)은 방글라데시의 봉제업에도 적용된다.

방글라데시 봉제업의 현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에 대해서 이 글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통계적 자료나 명목임금의 상승 추세를 보면 적어도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이 가설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설이 틀렸다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추가적인 연구와 증거가 모아져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봉제업에서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이 타당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악화 가능성이 있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길을 찾아주느냐 하는 것이다. 일련의 참사 이후에 국제적 압력 덕분에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의 봉제업이 처했던 상황은 방글라데시의 미래에 희망의 단초를 제공한다. 1970년대 초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사건으로 상징되는 암울한 상황은 타즈린 공장이나 라나 플라자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전태일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당시의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관료들에게 무거운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해주었다. 물론 지금도 한국에 노동 조건이 열악한 봉제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자각이나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 국제적 의류 소매 업체들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시민들의 압력 등이 결합된다면 방글라데시 봉제업은 물론 국가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으나 방글라데시 봉제업은 우리 입장에서 남의 일만은 아니다. 봉제업이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150여 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다. 투자액으로도 의류 분야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다. 한국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전체 품목의 95%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한국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진출 기업들은 향후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우선 작업장 안전기준 및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이므로 이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 조건의 개선은 한국 기업들에게 원가 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향상으로 이를 상쇄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근무자의 비중을 낮추는 정책을 많이 사용하나, 장기적으로는 충성심 높은 숙련 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한 한국 특유의 정(情) 경영이나 따듯한 경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방글라데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시민의식 또는 글로벌 사회공헌의 실천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만이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줄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소요가 발생할 때 우리 기업이 때로 그 중심에 섰던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세의 전환은 더욱 중요하다.

투고일: 2015년 9월 6일 | 심사일: 2016년 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20일

참고문헌

- 배운정. 2013.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례로 알아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GS Report』 11월호, 13-16.
- 윤승민. 2014. “방글라데시 사바르 참사 1년: 노동환경개선 의지 약한 정부.” 『경향신문』 (4월 28일).
- 외교부. 2010.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방글라데시 개황』.
- 조목인. 2014. “의류공장 참사 1년…방글라데시. 변한게 없다.” 『아시아경제』(4월 23일).
- KOTRA. 2013.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사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47』.
- Pratap, Surendra. 2011. “혼란에 빠진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 『국제노동 브리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38-51.
- 日本國際協力銀行 開發金融研究所. 2005. 『政策の一貫性分析』, 1-20.
- 小林公司. 2013. 『世界の縫製工場 バングラデシュ』. 東京: みずほ総合研究所.
- 山形辰史. 2013. 『バングラデシュの縫製業 貧困からの脱出口か迷宮か?』. 東京: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 村山真弓·山形辰史 編. 2013. 『バングラデシュ製造業の現段階』. 東京: 調査研究報告書アジア経済研究所.
- 明日山陽子·福西隆弘·山形辰史. 2011. “『底辺への競争』は起きているのか: バングラデシュ·カンボジア·케ニア의縫製産業で働く労働者の厚生.” 山形辰史 編. 『グローバル競争に打ち勝つ低所得国: 新時代の輸出指向開発戦略』, 研究双書 No. 592. 아시아경제연구소, 125-166.
- JETRO. 2013. 『在·아시아·오세아니아日系企業活動實態調査』.
- Shoncoy, Abu and Kenmai Tsubota. 2013. “Statistics on Bangladesh Manufacturing Industry.” 『バングラデシュ製造業の現段階』, 調査研究報告書. 東京: 아시아경제연구소.
- AFP South Asian Edition. 2009. *Bangladesh Textiles Unravelled by Price War, Protests*. Dhaka: The Free Library. July.

- Ahamed, Ferdous. 2012. "Improving Social Compliance in Bangladesh's Ready-made Garment Industry." *Labor and Management in Development* 13, 1-26.
- Ahmed, Nazneen. 2006. "Bangladesh Apparel Industry And Its Worker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Ph.D. Thesis. Wagening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 Bangladesh Bank. 2013.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Bangladesh*. Dhaka.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7. *Report on Censu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2001-02*. Dhaka: BBS.
- Bakht, Z., M. Salimullah, T. Yamagata, and M. Yunus. 2007. "Competitiveness of Labor-Intensive Industry in a Least Developed Country: A Case of the Knitwear Industry in Bangladesh."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Productivity and Growth in Africa and Asia." Organized by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and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IDE). Japan. at th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Tokyo. in October 11.
- Jason, Burke and Hammadi Saad. 2012. "Bangladesh Factory Fire Leaves More Than 100 Dead." *The Guardian* (Nov. 24).
- Butler, Sarah. 2014. "Bangladesh Garment Workers Still Vulnerable A Year After Rana Plaza." *The Guardian* (April 24).
- Centre for Policy Dialogue (CPD)·Berenshot. 2013. *Estimating a Living Minimum Wage for the Ready Made Garment Sector in Bangladesh*.
- Davies, Ronald B. and Krishna Chaitanya Vadlamannati. 2013. "A Race To The Bottom In Labor Standard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03, 1-14.
- Fukunishi, Takahiro, Mayumi Murayama, Tatsufumi Yamagata, and Akio Nishiura. 2006. *Industrializ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Pro-Poor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Revisited*. Vienna: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Joarder, Mohammad Abdul Munim, A.K.M. Nurul Hossain, and Mahbulul Hakim. 2010. "Post-MFA Performance of Bangladesh Apparel Sector."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6(4), 134-144.
- Khundker, N. 2002. "Globalization. Competitiveness and Job Quality in the Garment

- Industry in Bangladesh.” Chapter 3 in M. Muqtada et al., eds. *Bangladesh: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of Globalisation*. Study prepared for the ILO Geneva. UPL. Dhaka.
- ILO Subregional Office for South Asia. 2014. IPEC Subregional Information system on Child Labor. [http://www.ilo.org/legacy/english/regions/asro/newdelhi/ipec/responses/bangladesh /index.htm](http://www.ilo.org/legacy/english/regions/asro/newdelhi/ipec/responses/bangladesh/index.htm)(검색일: 2015. 6. 7).
- Islam, Mazedul, Adnan Maroof Khan, and Monirul Islam. 2013. “Textile Industries in Bangladesh and Challenges of Growth.” *Research Journal of Engineering Sciences* 2(2), 31-37.
- Kee, Hiau Looi. 2005. “Foreign Ownership and Firm Productivity in Bangladesh Garment Sector.” Mimeographed.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
- McKinsey & Company. 2012. “Bangladesh’s Ready-Made Garments Landscape: The Challenge of Growth.” http://www.mckinsey.de/sites/mck_files/files/2011_McKinsey_Bangladesh.pdf(검색일: 2014. 11. 25).
- Meyerson, Allen. 1997. “In Principle. A Case for More ‘Sweatshops’.” *The New York Times* (June 22).
- Nordas, K.N. 2004. “The Global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ost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Discussion Paper* No.5.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 Osmani, S. R., Wahiduddin Mahmud, Binayak Sen, Hulya Dagdeviren, and Anuradha Seth. 2003. *The Macroeconomics of Poverty Reduction: The Case Study of Bangladesh*. Dhaka: UNDP.
- Paul-Majumder, Pratima and Begum Anwara. 2000. “The Gender Imbalances in the Export Oriented Garment Industry in Bangladesh; Policy Research Report on Gender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No. 12. The World Bank. June.
- Quddus, Munir and Salim Rashid. 2000. *Entrepreneur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markable Story of Garment Exporters from Bangladesh*. Dhaka: University Press Limited.
- “Racing To The Bottom.” *The Economist* (Nov. 27th, 2013).
- Ross, Robert. 2014. “Inequality and The Global Race To The Bottom.” <http://>

inequality.org/inequality-global-race-bottom(검색일: 2014. 8. 7).

Ruth, Sullivan. 2014. “Rana Plaza Companies ‘Not Doing Enough.’” *Financial Times* (May 11).

The World Bank·IFC. 2011. *Fostering Women’s Economic Empowerment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s: The Case of Bangladesh*.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Tonelson, Alan. 2002. *The Race To The Bottom: Why A Worldwide Worker Surplus And Uncontrolled Free Trade Are Sinking American Living Standard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United States Senate. 2013. *Worker Safety And Labor Rights In Bangladesh’s Garment Sector*. A Majority Staff Report Prepared For The Us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Elations.

Yunus, Mohammad and Yamagata Tatsufumi. 2012. “Chapter 6: The Garment Industry in Bangladesh.” In Fukunishi Takahiro, ed. *Dyanmics of the Garment Industry in Low-Income Countries: Experience of Asia and Africa*. Wakaba, Mihamaku, Chiba, Japan: IDE-JETRO.

Abstract

Bangladesh Garment Industry: A Dangerous Road to Happiness

In-Soo H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in-Hua Y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garment industry has been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Bangladesh's economy for a long time. Bangladesh is the world's second biggest exporter of garments after China. Readymade garments make up 80 percent of the country's \$24 billion in annual exports and 15 percent share of GDP. But a series of industrial accident like the Tazreen factory fire and the Rana Plaza collaps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the world for the harsh and dangerous reality facing Bangladesh garment workers. It has also led to widespread discussion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cross the global supply chai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right and dark side of Bangladesh garment industry and the real background of a series of industrial disasters. At first, it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Bangladesh garment industry and its contribution to the macro econom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poverty reduction of Bangladesh.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working conditions of garment workers including low wage and long working hours. Other addressed topics include unsafe environment, poor social compliance and labor rights, unstable industrial relations, illegal labor practices, including other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debates on the validity of "a race to the bottom" as a theory that could explain the reality facing the Bangladesh garment industry. Lastly some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Korean clothing companies in Bangladesh that have been the leading foreign investors in the garment sector.

Keywords | Bangladesh, readymade garment (RMG) industry, apparel industry, “race to the bottom” theory, Rana Plaza collapse, labor rights

